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

(신성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263 |
|----------|------|

발의연월일 : 2012. 5. 14.

발 의 자 : 김동규, 김동수, 김영철,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신성철, 윤미라,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전준호, 정승현, 정진교, 한갑수, 함영미,
황효진 (21인)

1. 주 문

- 안산시는 1975년 반월신공업 도시로 지정 발표된 후 전원공업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중앙정부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관광수요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 대부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주말이면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외지의 방문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 방문객들의 이동에 필요한 도로망이 열악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방도 301호선의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지역내의 지방도라는 관리상 구분 때문에 도로 관리청인 안산시가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재정 부담이 아닐 수 없음.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사회복지비 증가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지방재원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301호 지방도의 개축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원 지방도」의 지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 안 이 유

- 안산시는 경기 남서부에 위치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주변에 도립수목원, USKR, 경기국제보트쇼, 대송단지, 송산그린시티, 시화호조력발전소 등의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되는 등 수도권 내 관광자원의 보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들 상호간의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특히 주말이면 수도권 등 외지에서 급격하게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대부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교통정체에 따른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7만 안산시민과 함께 지방도 301호선의 확·포장공사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문(안)

지방도 301호선은 현재 대부도 북측의 시흥시계부터 북동삼거리 구간과 남측의 화성시계부터 탄도구간까지는 왕복 4차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중간 구간(12.3km)은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시화방조제 축조에 따른 토석운반용 작업도로로 개설되었던 것으로 동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부도 전역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인 바, 지방도 301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 대부도는 시화방조제가 축조되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육상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한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안산시화호조력발전소 등 녹색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기초자치단체라 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재원을 안산시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급속한 노령화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에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산시 대부도와 같이 도시지역 내 농·어촌이 공존하는 현실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7만 안산시민과 함께 지방도 301호선의 확·포장공사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 지방도」의 지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2. 5.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

안 산 시 의 회